

고준위폐기물저장소건설 지지율 54%

스웨덴국민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소 건설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관계자들은 스웨덴국민들이 자기집 근처에 이러한 장소를 자진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가을 스웨덴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SIFO 여론조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저장소로 적합하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4%나 되었다. 스웨덴은 국내의 원자력발전계획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2000년까지 선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국과 같이 이러한 저장소를 기반내의 深地層에 건설하도록 돼있다.

SIFO 여론조사소 조사결과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89년 11월 이후 5번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대다수의 스웨덴 국민이 고준위저장소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IFO에 의하면 국민의 지지도 매우 안정돼있어 52~56% 정도로 돼있다.

미국의 원자력산업계 관계자들은 스웨덴이 네바다州的 절반밖에 안되는 면적에서 8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美 에너지성(DOE)에서도 네바다州에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저장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SIFO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웨덴국민의 85%가 국내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스웨덴국내에서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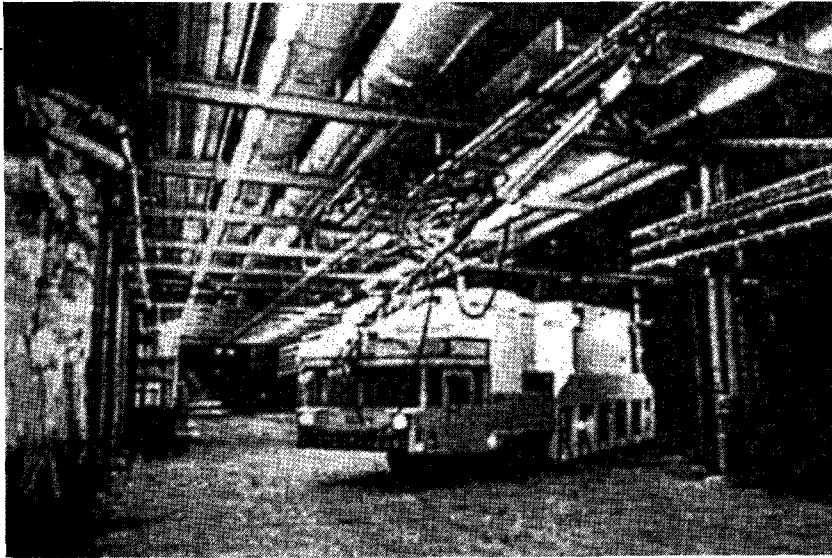
SIFO 여론조사소가 5개 항목 중에서 환경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나는 설문에 대해 가장 많았던 것이 오존층의 파괴로 64%의 사람이 그렇게 응답했다. 그 다음이 熱帶雨林的 남벌, 해양오염, 산성비의 순이었고 방사성폐기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7%로 가장 적었다.

유럽의 원자력발전설비 메이커인 Asea Brown Boveri(ABB)사의 L. 포겔스트롬 부사장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원자력에 대한 스웨덴국내여론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작년에 열린 美 원자력산업계연차대회(Nuclear Energy Forum)에서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선행됨으로써 그 다음에 방사성폐기물처분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스웨덴국민의 태도는 원자력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바뀌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국회는 작년에 12기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2기를 95년과 96년에 폐쇄하기로 한 88년의 국회결의를 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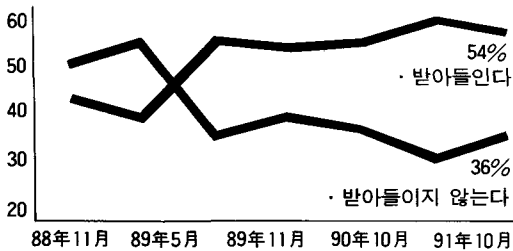
포겔스트롬씨는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가 이 새로운 결정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원자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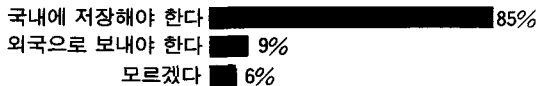
스웨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저중준위폐기물이 Forsmark발전소 근처의 「SFR」에 저장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스웨덴의 여론조사결과〉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고준위폐기물의 최종처분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은 스웨덴국내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을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최종 처분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보는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일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바뀐 것은 토론과 논쟁의 시점에서였다』고 그는 지적하고 『우리들은 지금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풍을 타고 있다. 대다수의 스웨덴국민은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했다. 또 『스웨덴국민 대다수는 고준위폐기물 최종처분장이 자기집 근처에 건설되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스웨덴원자력산업회의의 C. 워다알 사무총장도 방사성폐기물저장에 대한 국내여론이 원자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같은 저장소에 대한 스웨덴국민의 이해는 세계적으로 보아 전부터 높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저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은 원인에 대해 국내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국민 각계각층에 대해 안전한 폐기물처분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것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이 1970년대이며 그후 국민의 이해가 차츰 깊어져 여론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그는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현재 방사성폐기물이 거의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그는 현재 스웨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좋은 정보만으로는 여론을 바꿔놓을 수 없다. 그 전제조건으로 매우 우수하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한 시스템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日本原産新聞 3月 12日)